

전남·호주 유아들, 함께 만들고 배우는 ‘숲 놀이터’ 체험

도교육청, 여수 도원초병설유치원서 2030교실 공개
생태 환경·디지털 매개로 협력·창의성 키우는 수업

전남도교육청이 생태 환경과 디지털을 매개로 협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유아 2030교실’ 수업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11일 여수 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진행된 공개수업은 ‘2024 글로벌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주목받은 전남의 미래수업 모델이 유아교육 현장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수업은 도원초병설유치원과 호주의 로즈유치원, 관기초병설유치원이 함께 한 온라인 국제 공동수업으로,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숲 놀이터를 설계하고 공유하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보여줬다. 수업은 생태환경교육과 디지털 활용, 국제 교류가 융합된 전남형 미래수업의

실현 사례로 주목받았다. 세 유치원은 ‘함께 만드는 숲 놀이터’를 주제로 그동안 호주 유아들과 함께 소통하며 준비한 자연물을 활용해 숲 놀이터를 꾸미고, 화상으로 연결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는 유아 단계에서도 언어와 문화를 넘어 협력·공감·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수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도원초병설유치원은 지난 9월부터 호주 로즈유치원, 관기초병설유치원과 정기적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공동수업을 이어왔다. 이번 공개수업은 그간의 교류 활동이 결실을 맺은 자리로, 유아들이 세계 친구들과 함께 만든 ‘숲 놀이터’

를 완성하며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나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공개수업을 계기로 세계 여러 교육기관과 협력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미래지향적 놀이 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환경·세계시민·다문화교육 등의 미래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공동수업의 지속 운영을 위해 교원 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치원별 교육활동 사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수업 혁신 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국제 공동수업은 유아들이 생태환경과 디지털을 매개로 세계와 소통하며 배우는 생생한 교육 현장이었다”며 “전남의 모든 유아가 자연을 사랑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11일 여수 도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함께 만드는 숲 놀이터’를 주제로 한 유아 2030교실 수업공개가 진행되고 있다.

■ 광주교통경제인단체協 ‘2025 광주교통대상’ 시상식

개인택시조합 심상열씨 대상...“상생 교통문화 위해 앞장”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가 선진 교통문화 정립과 안전문화 확립에 앞장선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는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2025 광주교통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시상식은 협의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광주지역 교통경제 발전을 이끈 유공자와 단체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장이 직접 참석해 각 단체의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 영예의 대상은 개인택시조합 심상열씨가 차지했다. 심씨는 지역 교통문화 선진화와 택시 서비스 혁신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의 주인공이 됐다. 또 교통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준호 국회의원과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는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2025 광주교통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강수훈 광주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행사는 축하 메시지와 수상자 단체 사진 촬영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협의회는 향후에도 지역 교통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 제안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장대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장은 “창립 20주년을 함께한 오늘, 그동안 노고와 헌신으로 교통경제의 발전을 이뤄 낸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

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과 종사자가 함께 웃는 광주, 안전과 상생의 교통문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n1404@gwangnam.co.kr

담양, ‘마음건강 GO! 걷기 기부챌린지’ 목표 달성

아동복지시설에 학용품세트 기부

담양군은 11일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통한 ‘마음건강 GO! 걷기 기부챌린지’ 목표 달성에 성공. 아동복지시설에 학용품세트 1010개를 기부했다. 이번 걷기 기부챌린지는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군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걷기를 실천하며 마음 건강을 돌보고, 동시에 지역사회 나눔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챌린지에는 1014명의 군민이 참여해 목표였던 7000만보를 훌쩍 넘는 1억4000만보 이상을 기록하며 큰 반응을 얻었다. 군은 챌린지 성과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새 꿈터, 드림스타트, 담빛청소년문화의집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게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세트를 전달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해 아동·청소년에게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news@

전남 4-H연합회, 중앙경진대회 ‘종합우승’

청년농업인들 열정 빛나...전남농업기술원 “미래농업 주역” 격려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지난 5일부터 3일간 고흥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제51회 한국4-H 중앙경진대회’에서 전남도 4-H연합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청년4-H회원들이 농업·농산업 관련 다양한 경진 프로그램에 참가해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다. 총 7개 부문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전남도 4-H연합회는 △청년농산업 아이디어 경진 △농기계 활용 경진 △활동 사진 경진 △농산물 전시 부스 경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국 최고 성적을 거뒀다. 허승원 전남도 4-H연합회장은 “이번 종합우승은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전남 4-H연합회가 미래 전남농업을 선도하는 청년 조직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청년4-H회원들은 미래농업의 주역이자 지역 농업혁신의 중심”이라며 “좋은 것을 좋게

실현으로 배우자는 4-H의 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남농업을 이끌어갈 바란다”고 격려했다. 현재 전남에는 약 1500명의 청년4-H 회원이 활동 중이며,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4-H연합회가 지난 5일부터 3일간 고흥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제51회 한국4-H 중앙경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도심·농촌 하나로...본량 도농 어울림 한마당 성료

광주 광산구 본량동(동장 유대원)이 도심과 농촌이 하나 되는 ‘2025년 본량도농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본량동 도농 어울림 한마당 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본량동 통장단·발전위원회가 주관했다. 축제는 지난 8일 광산구 더하기센터 운동장에서 진행했으며,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자개거울 만들기’ △매주를 활용한 친환경 수제 비누 만들기 △꽃차·꽃식초 식음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체험공간 외에도 명랑운동회가 열려 축제의 활기를 더했다. 오화열 도농 어울림 한마당 축제위원장은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본량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정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축제를 바탕으로 도농 교류와 주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게시판

- 결론**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신희진(논산 참약사대온약국) 군 박승호(아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씨(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 차녀 박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 양=11월 16일 일요일 낮 12시30분, 드라마 웨딩홀 신관 지젤홀 1층(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 부음**

▲김중진 씨 별세, 김기태(프로야구 전 KIA타이거즈 감독) 씨 부친상 = 10일, 광주 북구 그린장례문화원 201호, 발인 12일 낮 12시. 문의 062-250-4455.

온세 (음력 9월 23일)

- 쥐**

48년생 재물과 인연이 깊은 날
60년생 귀인 덕으로 소원 이룰 것
72년생 지금 당장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84년생 암초투성이 운으로 진입
96년생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다
- 토끼**

51년생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자
63년생 바쁘지만 소독했다
75년생 남비 줄이고 절약에 힘쓰자
87년생 뜻밖의 일로 심신이 고달픈 날
99년생 좋은 소식이 온다
- 말**

54년생 다툼에 끼여드는 것을 피하자
66년생 이득이 따르는 거래가 성사된다
78년생 자녀로 인한 구설수 주의
90년생 유혹에 동조한다면 될 일도 안된다
- 돼지**

57년생 인연이 맺어지지 않는다
69년생 이익을 바라면 얻을 것도 놓친다
81년생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 내야 한다
93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된다
- 소**

49년생 실은 기본 일이 있다
61년생 변수 보이나 이룰 감안하자
73년생 힘들더라도 끝맺음은 일차다
85년생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97년생 친구 이해와 양보로 대하는 날
- 황소**

52년생 예상외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다
64년생 좋은 마무리는 재물 불러올 수도 있다
76년생 좋은 일이지만 꼭 필요한 것만 취하자
88년생 천리를 가면 진퇴양난이 될 수 있다
- 양**

55년생 무리가 따른다면 진행하지 말자
67년생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79년생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
91년생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환경
- 개**

58년생 간절히 바라는 일 있어도 기대하지 마라
70년생 생각하면서 즉석 답변을 피하라
82년생 한번 나간 돈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94년생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할 것
- 호랑이**

50년생 구설 있으니 급급적 외출을 자제
62년생 이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74년생 자녀로 인해 마음 안정을 찾는다
86년생 투기성 있는 거래가 적함하지 않는 날
98년생 소개팅 신중히 판단해라
- 범**

53년생 쓸데없는 금전 지출만 생길 것
65년생 일이 즐겁고 수월한 하루
77년생 금전이 들어와 즐거운 날
89년생 도움을 청하면 해결될 수도 있다
- 원숭이**

56년생 자신감 있는 계획은 성공할 수 있다
68년생 금전 들어오지만 동업은 거절하라
80년생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진다
92년생 친구가 관재수를 가지고 올 수 있다
- 돼지**

59년생 말이 최근이 될 수 있으니 입 조심
71년생 수단을 동원해야 해결될 기미 보인다
83년생 문서 손에 들어오지만 투자는 거절
95년생 친구와 언쟁을 피하자